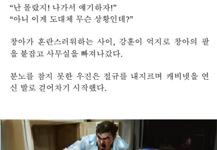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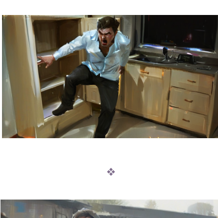

6-Episode Seasonal Series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24

❖

샤워를 마친 우진이 휴게실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블랙마켓의 강 사장과 남자 노인이 아름다운 외모의 창아의 팔짱을 낀 채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창아의 몸에 들어와 우진과 함께 침대 위에서 뒹굴었던 남자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 우진아. 난 네 위에 있을 때보다 네 아래에 깔릴 때가 더 좋더라…."

우진은 애써 역겨운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다.

"저야 일할 뿐이니까요."

노인은 창아의 볼을 쓰다듬으며 창아에게 말했다.

"우리 창아도 몸이 예뻐서 이런저런 자세로 놀기에 너무 좋더라. 고생했어. 단골 되겠다, 얘."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죠."

창아가 사무적인 건지 애교를 부리는 건지 모를 어조로 대답했다.

"근데 강 사장. 이제 클론 의무화 되면 나도 클론 받을 텐데, 그럼 여기 유지가 되겠어?"

강 사장은 특유의 너털 웃음과 함께 답했다.

"아니 사장님. 이미 창아랑 우진이 맛을 보셨는데, 아무리 젊어진다고 한들 만족하시겠어요?"
"아차, 그런가?"
"원래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살죠. 남의 몸을 쓴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클론 하신 분 중에서도 저희 고객이 많아요."
"그렇단 말이지? 알겠어. 클론 하더라도 또 올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하셨으니까 애들 좀 쉬게 나가시죠."

강 사장은 우진과 창아에게 특유의 '좀만 쉬고 일해!' 표정을 짓더니 노인의 등을 떠밀며 휴게실에서 빠져나갔다. 조용해진 휴게실에 정적이 감돌았다. 어색한 공기를 뒤로 하고 창아가 나가려는데 우진이 창아를 붙잡았다.

"창아야, 넌 소울라이딩 중이라 몰랐겠지만 난 사실 좋았어…."

창아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우리 다시 사귀면 안 될까?"

짧은 정적 뒤로 창아가 대답했다.

"나 만나는 사람 있어."
"누군데?"
"말한다고 알아? 너보단 안정적인 사람이야. 이미 클론도 했고."
"클론? 그럼 엄청 노인네라는 소리 아냐? 너 그러고 싶어? 너처럼 예쁜 애가?"

창아는 우진의 손길을 뿌리치고 냉정한 말을 남긴 채 샤워실을 떠났다.

"계속 몸 팔면서 살 순 없잖아."

❖

다시 옷을 입은 우진이 사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진의 아버지, 강훈이 젊은 시절의 모습을 한 채 들어왔다. 갑작스런 강훈의 방문에 놀란 우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서비스 이용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 나야 이제 젊어졌는데 이런 서비스를 뭣하러 이용하겠냐. 근데 너 오늘 휴차 아니었냐?"
"쉬면 뭐하나 싶어 나왔죠."

강훈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창아가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저 뒷편에서 달려와 우진이 보란듯이 강훈의 팔짱을 꼈다.

"오빠 왔어? 나도 이제 끝났어!"
"창아야, 그 사람이 설마…."

우진의 목소리가 한껏 떨리고 있었다.

"왜, 아는 사람이야?"

창아가 우진을 놀리듯 물었다. 강훈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우진에게 말했다.

"우진아, 이거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돈텔마마! 알겠지?"
"아버지!"

창아가 굳어진 표정으로 강훈과 우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우진이 오빠 아들이야? 오빠, 이거 알고 나 만난 거야?"
"난 몰랐지! 나가서 얘기하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데?"

창아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강훈이 억지로 창아의 팔을 붙잡고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분노를 참지 못한 우진은 절규를 내지르며 캐비넷을 연신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클론을 빌미로 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게요! 그럼 젊어지는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빈민촌의 마을회관, 한 중년 남자가 [클론의무화 과연 안전한 것인가?]라는 현수막 앞에서 서서 연설하고 있었다. '옳소!'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중년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경훈 아빠? 그럼 지금은 자유롭습니까? 어차피 당신도 젊었을 때는 회사의 노예였고, 지금은 폐지나 주우면서 아들 피 빨아 먹는 노예 아니에요?"

연설하던 '경훈 아빠'가 중년 여성을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아니, 순혜 엄마는 그럼 어차피 그런 거 왜 살고 있답니까? 칵 죽어버리는 게 낫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못 죽어서 살고 있는 거죠! 왜, 찔러 죽여주시게요? 그럼 보험금이라도 순혜 줄 수 있고 나야 좋지!"

'순혜 엄마'가 경훈 아빠를 향해 달려들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이 순혜 엄마의 팔을 붙잡고 간신히 제지하는데 성공했다. 순혜 엄마와 경훈 아빠가 서로를 노려보며 씩씩거리고 있는데 동네 이장이 나서서 중재를 시도했다.

"자, 아직은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고 DR. NEX 일당의 말도 다 맞다고 믿을 수는 없으니까 진정들 합시다."
"맞습니다! 그 도둑놈들 얘기를 어떻게 다 믿어요?"

순혜 엄마가 소리쳤다. 그러자 때를 기다리던 경훈 아빠가 다시 순혜 엄마를 삿대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소리에요? 국장 자리에서 다 봤잖아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마을 회관은 순식간에 경훈 아빠의 편과 순혜 엄마의 편으로 갈라져 웅성이기 시작했다. 동네 이장이 경훈 아빠를 자리에 앉힌 뒤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본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자자… 그럼 얼마 전에 클론을 경험하신 우진 아빠, 강훈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려 보겠습니다."

마을 이장의 손에 들려 있던 마이크가 강훈에게 전달되었다. 젊은 외모의 강훈과 늙은 아내가 기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다. 강훈은 목청을 가다듬더니 마이크에 대고 말하기 시작했다.

"에… 저는 일단 지금의 몸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멜트다운을 겪지도 않았고, 누가 나를 조종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동네 이장이 거들듯 물었다.

"그러면 클론 의무화에 찬성이란 말씀이십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나만 클론 되면 더 좋겠죠."

몇몇 사람들이 농담이라는 걸 알아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손을 들더니 소리쳤다.

"저도 찬성입니다! 지금 우리 남편 몸이 젊어지더니 밖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계집질을 하고 다니는데, 저도 빨리 젊어져서 이 남자 저 남자 서방질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여편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건들 여자가 없어서 아들 여친을 건드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젊은 남편이 늙은 아내의 입을 다급하게 가로막으며 늙은 아내만 들리게끔 작은 목소리로 항변했다. 주변 사람에게 모두 들렸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도 없었지만 말이다.

"내가 걔 전 여친인 줄 알았겠어? 집에 가서 얘기해, 집에 가서!"

마이크를 돌려 받은 동네 이장이 머쓱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었다.

"네, 역시 클론 이후에는 별 일이 다 있는 거 같긴 합니다. 그럼 그 문제의 동녑과 친하게 지냈던 덕현이 말도 들어봅시다. DR. NEX 군단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덕현이 마이크를 건네 받았다.

"음… 저는 DR. NEX 군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동녑 형이 테러리스트라는 것도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녑이 형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면, 클론은 좀 위험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순혜 엄마가 답답하단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덕현이 넌 네 병신 다리부터 클론으로 고쳐야 하는 애야, 정신 좀 차려!"
"아니 순혜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경훈 아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전 좀 불편하긴 해도 제 몸에 만족하고 있어요…."

덕현이 일부러 마이크를 멀리 잡고 말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 니네 할머니처럼!"

순혜 엄마의 폭언이 심해지자 중재만 하던 이장도 더 이상은 중립을 지키기가 힘들었는지, 먼저 나서 순혜 엄마를 제지했다. 덕현이 순혜 엄마를 바라보며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네, 저도 언젠간 죽겠죠. 하지만 전 불편하더라도 자유롭게 살다가 죽는 걸 택하겠습니다. 만약 동녑이 형 말이 맞아서, 아주머니께서 클론을 받으시고 자유롭지 않게 되면 전 병신이더라도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아주머니를 비웃다 죽을 거예요."
"아니, 저 다리 병신이 못하는 말이 없어?!"

마을 회관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워진 가운데, 덕현이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꼭 쥔 채 순혜 엄마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Continued to ep.25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